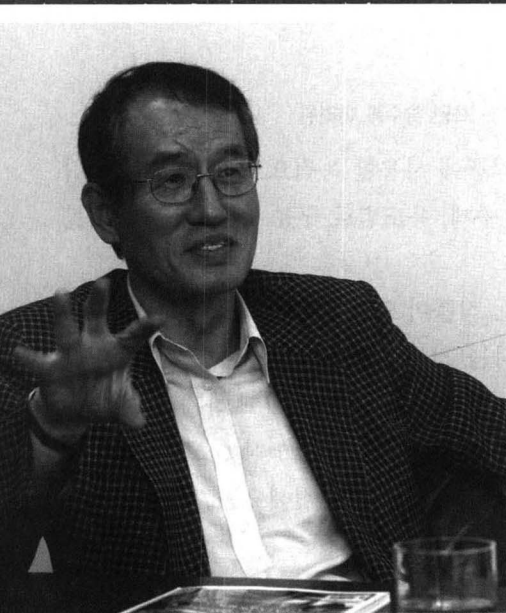


‘책과 경영의 접목…독서는 인격의 질 좌우’

‘매주 2~3권 이상 독파’, 전 사원 ‘북 마니아’
 ‘독서경영은 남는 장사’, 경영자부터 책 즐겨야
 ‘독서는 습관일뿐 비법 없어…운동하듯 해야’



동양기전 조병호(61) 회장은 “책을 읽지 않고 발전을 꾀하는 건, 밥을 먹지 않고 힘내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책 읽기의 소중함을 말했다. 조 회장은 소문난 북마니아다. 평소에도 손에 책이 들려있지 않으면 불안할 정도다.

“시간 없고, 일에 쫓겨 책을 멀리한다는 비즈니스 세계의 통념은 그야말로 통속적인 고정 관념일 뿐이죠. 책을 읽는다는 것은 뭐 그리 특별한 행위가 아닙니다. 생활의 한 부분이며, 습관입니다.”

조 회장의 책을 아끼는 마음은 유별나다. 외출할 때도 손에 책이 쥐어있지 않으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책을 들고 나올 정도다. 그렇게 읽는 책이 매주 2~3권을 넘나든다. 아예 책이 조 회장 자신의 일부가 돼버린 셈이다. 독서습관이 자아낸 책의 향기가 몸에 배었고, 이는 다시 주변, 특히 동양기전에 몸담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다. 결코 강요나 상명하복의 위계에 의한 것이 아니다. 마치 기분좋은 향수가 퍼져나가듯, 어느덧 동양기전은 조 회장으로부터 말단 사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북 마니아 일색이다.

“책을 즐겨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격의 질이 다르죠. 굳이 ‘독서경영’이라고 거창하게 이름 붙일 것도 없어요. 읽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개인이 좀더 내면적으로 튼실해지고, 수준 높은 조직문화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생산성이나 기업 역량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조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이른바 정통 KS맨이다. 그러나 그의 어느 곳에서도 경박한 엘리트즘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1천 명 직원을 둔 중견기업 회장이라기보다, 때론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같고, 고민을 들어주는 친근한 카운슬러 같다. 하지만 지적 권위라고 할까. 대화의 행간에서 은연중에 비쳐지는 세련된 사고와 매너에서 남다른 독서의 흔적이 묻어난다.

개인과 조직 발전의 힘, 책으로부터…

지금도 경영일선에서 한발 물러나 있지만, 그가 일군 경영 행로는 동양기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에까지 드리운 이정표나 다름없다. 대우중공업에서 퇴직한 이후, 1978년 10월에 동양기전을 창립해 줄곧 자동차모터, 건설기계용 유압실린더, 세차기·크레인 제조에만 몰두해 왔다.

거대기업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던 IMF외환위기 당시 동양기전도

힘든 고비를 넘겨야 했다. 조 회장은 “위기를 넘기고, 지금껏 은행 빚 없이 강한 근력을 키워온 튼실한 기업으로 성장한 비결은 뭐니뭐니 해도 독서경영 덕분”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독서경영은 남는 장사”라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다. “다만 독서경영은 경영자 스스로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면서 “경영자가 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마치 일회성 캠페인을 벌이듯, 독서를 주창하다간 ‘무늬만 독서경영’에 그치기 십상”이라고 했다.

조 회장은 인재양성의 중요성도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득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책과 독서의 역할을 높이 산다.

“책을 통해서 앎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비결이죠. 그렇게 길러진 인재는 한 회사의 명운을 좌우하는 자산입니다. 저로서는 경영이념의 첫째가 독서의 내공을 바탕으로 한 인재양성이죠.”

국내에서 독서경영의 효시는 동양기전이라 해도 과언 아니다. ‘독서경영’이란 어휘 자체가 조 회장이 만들고 실천해보인데서 비롯됐다. 처음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부터 그는 본격적인 ‘책과 경영의 접목’을 생각했다. 몸에 밴 자신의 책읽기 습관이 주효했음은 물론이다.

“중국법인을 설립하고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일 먼저 추진한 일이 ‘책 읽는 기업문화’였어요. 책을 비교적 안 읽는 편인 현지인들에게 책을 사주면서 읽게 했고, 독후감을 쓰도록 했죠. 하루라도 빨리 후자를 내려는 기업들에겐 ‘느린’ 방법일 수 있지만, ‘꾸준한 느낌은 곧 정상에 오르는 비결’임을 확신했어요.”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내독서대학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4년 동안 100권의 책을 읽어나가는 프로그램은 국내 기업들이 독서경영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을 정도로 치밀하고 체계적이다. 독서대학에 그치지 않고 동양기전 문학제, 독서토론회, 독서캠프, 저자 주제 강연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도 운영한다. 물론 그 중심엔 조 회장이 있다.

‘책의 향기’는 노사간 화합 이루는 ‘방향제’

조 회장은 “전 직원과 경영진이 하나 되어 함께 읽고 함께 나누는 독서문화는 우호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도 일조했다”며 “이는 노사간의 이해를 넓히고, 조직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한다”고 말했다. 실제 동양기전 노사협상 현장에서도 이는 여실히 입증되기도 했다.

“전 사원들이 소설 《당신들의 천국》을 함께 읽고 난 다음이죠. 노사 협상 자리에서 온통 책이야기 뿐이었어요. 책의 내용을 인용하며 마치 독후감 토론 마당처럼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서 어떻게 언성을 높이겠어요? 붉은 띠를 두른 전투적 갈등이나 힘으로 노동자를 누르려는 사용자의 모습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 덕분에 동양기전은 1996년도에 노사화합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기까지 했다. 노사간의 불신과 적대감이 있을 수 없는 ‘우리들의 천국’ 이 바로 동양기전이다.

이때 받은 상금 500만원은 후일 요긴한 독서활동 자금으로 사용됐다. 조 회장은 지난 1995년 서울 천호동 명진보육원에서 독서지도 봉사활동을 한 것을 계기로 이듬해 ‘독서의 달’(9월) 기념 독서지도 자원봉사단을 조직했다. 이때 상금을 자원봉사단 조직의 종잣돈으로 사용했다. 그는 지금도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의 한우리독서지도봉사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양기전 직원들도 봉사단에 참여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 회장, ‘실용서보단 문화·역사 서적 즐겨’

조 회장은 문고판을 즐겨 읽는다. “뒷주머니에 쏙 들어가고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어 제격”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용서적이거나 처세술 관련 책들, 이른바 인생을 사는 ‘방법론’ 따위의 책은 멀리해요. 주중에는 경제경영 관련 도서를 읽고, 한결 심심이 여유로운 주말에는 인문도서를 주로 읽어요. 특히 역사책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요즘엔 중국과 인도의 문화, 역사에 관한 책을 두루 섭렵하고 있다. 중국에 관한 책은 100권 넘게 정독할 정도. 물론 중국 진출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

《당신들의 천국》, 《삶과 그 보람》, 《나는 학생이다》는 조 회장의 인생에서 변함없이 영향을 끼친 책이다. 하루에 맘먹으면 단행본 두 권을 소화한다는 조 회장에게 특별히 책 읽는 비법은 없다.

“책 읽는 것도 운동과 똑같아요. 운동을 하면 기속도가 붙듯이 책 읽는 습관을 꾸준히 가지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책이란 무슨 ‘비법’이 적용되는 기술이나 물건이 아닙니다. 그저 읽고 싶은 마음으로 읽을 따름입니다.”

최근 그는 《세계는 평평하다》와 《피터드러커의 위대한 혁신》을 눈여겨 읽었고, 여름 휴가철엔 《열하일기》를 완독했다. **※**

취재_정윤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만남의 틈새에서...

조 회장의 집무실은 놀라울 정도로 소박하다. 번듯한 가구 하나 보이지 않는 두 평 규모의 방에 오래된 낡은 책상과 책장이 전부다. 중견 기업의 CEO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고 할까. 대신 그의 방엔 자신이 아끼는 책들이며, 읽고 있는 책들이 쌓여 있다.

한때 이 땅의 졸부족들이 즐겨했던 ‘장식용 서가’ 따위와는 거리가 멀다. “집무실에 온통 책뿐”이라는 기자의 소감에 “모두 다 읽고 난 것들을 그냥 무심하게 쌓아두었다”고 한다. 담담한 언행과 몸가짐, 그리고 맺되 끊기지 않는 화법 또한 그처럼 ‘무심하게’ 체득한 독서의 내공 덕이 아닌가 싶다. **※**